

# 雲門

불기 2564년  
겨울호  
통권 제154호  
雲門寺僧伽大學



## 그림문을 펼치다

- ⊗ 그리운 운문사가 될 것 같습니다. / 대교과 현근
- ⊗ 봄에는 매화, 목련, 벚꽃. 여름엔 시원한 이목소와 녹음. 가을은 단풍 든 은행나무, 감나무. 겨울은 하얀 눈 덮인 처진 소나무. 사계절 모두 화엄이었습니다. / 대교과 영산
- ⊗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난 자리에 봄꽃이 핍니다. / 대교과 지엄
- ⊗ 구들장 아랫목 한자리 내주는 도반의 따스함으로 면력력 up 정진력 up / 사교과 영림
- ⊗ 매서운 겨울도 따스해질 수 있는 건... 오직 내 마음. /사교과 진욱
- ⊗ 겨울나무가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 고고와 강인함을 설하듯 수행자는 수행의 깊이가 더 할수록 그 삶 자체의 모습들이 불법을 전하는 것이다. / 사집과 보현
- ⊗ 그 봄을 활짝 꽃 피우기 위해 온전히 가득 에너지를 머금은 이 겨울이 어쩌면 가장 화려한 고요일지도 모른다. / 사집과 성안
- ⊗ 모두의 몸과 마음에 평안한 겨울이 되기를... / 사집과 성륜
- ⊗ 겨 : 겨울만 되면 추워서 울 : 울긋불긋 해지는 내 얼굴. / 사집과 마노
- ⊗ 겨울 하늘 화폭에 바람뿌 지나가는 여백의 미만 남았네. 치문의 겨울도 바람뿌과 함께 하늘 화폭에 담기리라. / 사미니과 서목
- ⊗ 겨울 찬바람에 손이시려 호호~ 장갑 내미는 도반 얼굴에 핀 미소 보며 호호~ / 사미니과 보선

# 雲門

## 목차

02 호거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흠흠싹싹하게 쓰는 마음 명성
06 특별논단	진여연기眞如緣起에 대한 고찰 ① 명성
10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시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은광
12 자유기고 1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
15 想	삼수도하三獸渡河 무득
16 만남, 선지식의 초대	이 시대 수행자의 방향과 가치관 범륜
20 외부기고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의 명상 용어 정리 전현수
23 풍경소리	하늘을 담은 샘물 일여
24 학인논단	믿는 마음[信心]에 대한 고찰 자우
28 선지식 탐방	평화로운 미소의 힘 -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을 뵈고 - 탄연
32 수행의 두레박 하나	오만과 편견 문광
34 수행의 두레박 둘	끝, 다시 시작 대겸
36 수행의 두레박 셋	제 57기 졸업을 앞두고 승혜
38 차례법문	Let It Be(순리에 맡겨라) 선덕
40 자유기고 2	코로나 시대에 강림하신 약사여래 수완
42 운문, 운문인	우리, 같이, 함께 편집부
44 화랑동산	호거산 운문티비를 아시나요? 교화부
46 이 한 권의 책	존재의 떨림과 울림에 응답하라! 성경
48 운문논평	미식美食에 대한 재고 편집부
50 운문소식	
51 등불	견적見跡 편집부



## 흡흡imately하게 쓰는 마음

명성 / 운문사 회주



일반적으로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여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 그릇이 크다 혹은 그릇이 작다고 하고, 그 사람 그릇이 됐다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그릇이라는 말보다 ‘근기根機’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대기설법對機說法의 기機리는 것이 바로 그 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근利根과 둔근鈍根을 나누기도 하고 상근, 중근, 하근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기라는 말은 사람들 간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근기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바탕으로써 이해해야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선근을 심고 노력하여 자신의 기틀을 넓히는 계기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恰恰用心時에 恰恰無心用이니  
 無心恰恰用하면 常用恰恰無로다  
 흡흡히 마음을 쓸 때 흡흡하게 무심으로 쓰나니  
 무심을 흡흡하게 쓴다면 항상 쓴다해도 흡흡함조차 없도다

영가현각 스님의 『선종영가집』에 나오는 계송입니다.

여기서 ‘흡흡恰恰’이란 마음을 쓰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몸이 느끼고 뜻으로 생각할 때 근根과 진塵이 상대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공간과 모든 순간 속에서 흡흡히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때 우리는 온전히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그 경계에 응해서 마음을 흠뻑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을 흠뻑 쓰고는 있지만, 그 용심用心할 때의 마음 상태는 천차만별입니다. 계송에서 영가 스님은 쓰지만 쓸 것 없는 마음, 무심無心을 말합니다. 육진 경계에 온 마음을 쓰지만, 물들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무심의 상태에서 흡흡하게 쓰는 마음은 써도써도 다함이 없는 무진장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무심無心은 그릇의 테두리가 깨져 사라진 상태입니다. 테두리 없는 그릇은 이미 천하를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경전을 펼 때마다 ‘원컨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이다’라고 송하는 개경계의 구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근기가 나날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크기가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서원입니다.

그리하여 쓸 바도 없고, 써도써도 바닥 모를 광대한 마음으로 흡흡하게 용심할 수 있는 근기의 사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실한 뜻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진여연기眞如緣起에 대한 고찰 1

명성 / 운문사 회주

- 1. 서언
- 2. 진여眞如의 의의
- 3. 『기신론起信論』의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
  - (1) 연기緣起의 근원인 아리아식阿黎耶識
  - (2) 염법연기染法緣起
  - (3) 정법연기淨法緣起
- 4. 결어

## 1. 서언

이 우주간의 일체만유는 어떻게 현상하여 전개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관찰하는 법을 불교에서는 연기론緣起論이라 한다.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한 유일절대신이 우주만유와 인류를 창조한 것이라 하며, 또 인도의 바라문교에서는 유일의 범[Brahman]으로부터 이 우주만물이 전개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불교는 본래부터 우주 창조신인 조물주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주와 일체만유一切萬有는 어떻게 전개된 것인가? 『불본행경佛本行經』<sup>1)</sup> 권 49에 「제법중인생諸法從因生 제법중인멸諸法從因滅」이라든가 또 『입능가경入楞伽經』<sup>2)</sup> 권2에 「일체제법중인연생一切諸法從因緣生」이라든가 또 『중관론中觀論』<sup>3)</sup> 사제품에 「미중유일법未曾有一法, 부중인연생不從因緣生」 등이라고 있는 바와 같이 일체만유는 서로 인이 되고 서로 연이 되어 질서정연한 인과율에 의해서 현상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연기의 이법理法이다. 그런데 이 연기에 관해서 여

러 가지 연기설이 있는데,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 뇌야연기설賴耶緣起說,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 육대연기설六大緣起說, 불계연기설佛界緣起說 등이 그것이다.

즉 일체만유의 생기의 원인을 일체중생이 조작하는 업력에 있다고 보는 것을 업감연기業感緣起라고 하고, 그 생기의 원인을 일체중생의 심식心識의 주체인 아뢰야식으로부터 변현變現한 바라고 설하는 것을 뇌야연기賴耶緣起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일체제법의 실재적인 본체 즉 진여의 존재를 인정하여 그 주체로부터 생기한다고 설하는 진여연기설이 있고 또 이와 같이 현상계의 본체를 인정하는 이상 현상이 곧 본체요, 본체가 곧 현상이므로 일체현상은 현상 그대로가 곧 본체의 활현活現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서로 인이 되고 연이 되어 무진無盡한 연기를 이루는 것을 법계연기法界緣起라고 한다. 또 법계의 구체적인 실체를 지地, 수水, 화火, 풍風, 공空, 식識의 육대六대 인정하고 이 법계의 삼라만상 그대로가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전신체라

설하여 이 우주만유는 대일여래의 실체로부터 연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육대연기설六大緣起說이 있으며, 또 이 법계의 근본을 추궁하면 그것은 일활불一活佛의 세계로서 일체의 현상은 모두 일불세계一佛世界로부터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하는 불계연기설佛界緣起說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기설 중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을 『기신론起信論』에 의거해서 약술하고자 한다.

## 2. 진여眞如의 의의

먼저 원시경전原始經典<sup>4)</sup>에 진여眞如라고 설한 근거를 찾아본다면 『잡아함경雜阿含經』<sup>5)</sup> 권21에

「以一乘道淨衆生離憂悲得眞如法」

이라고 하여 진여의 내용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나 그 명사만은 나타나 있다. 그 후 부과간部

派間에도 이 진여설眞如說은 중요시되었던 모양으로 화지부化地部<sup>6)</sup>에서 택멸진여擇滅眞如, 비택멸진여非擇滅眞如, 허공진여虛空眞如, 부동진여不動眞如, 선법진여善法眞如, 불선법진여不善法眞如, 무기법진여無記法眞如, 도지진여道支眞如, 연기진여緣起眞如 등의 9종을 설하였으니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에서 본다면 주목되는 사실이다. 또 『대반야경大般若經』<sup>7)</sup> 권567에 의한다면

「世尊何謂諸法眞如 天王當知 眞如深妙 但可智知 非言能說 何以故 諸法眞如 過諸文字 離語言境 一切語業不能行苦 離諸戲論 絕諸分別 無此無彼 離相無相 遠離尋伺」

라고 하여, 진여는 언어문자의 모든 회론을 여의고 망상분별의 모든 심연心緣의 상相을 끊었으며 상相과 무상無相을 여의고 피차가 없는 것이므로, 여래如來의 진여와 중생의 진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여 진여의 당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또 『성유식론』<sup>8)</sup> 권9에

- 1) 『불본행경佛本行經』 : 60권. 수나라 사나굴다 번역, 석존의 탄생으로부터 출가성도 등 일대의 사실을 말하고 불제자의 귀의에 관한 인연까지 기록.
- 2) 『입능가경入楞伽經』 : 십권능가十卷楞伽라고도 하며 약해서 『능가경』이라고도 함. 『능가경』의 현존한 3본 중에서 513년 보리류지菩提流支가 번역한 것. 오법五法, 삼성三性, 팔식八識, 이무아二無我 등의 뜻을 설하고 일이유무一異有無 등의 집착을 여의고 여래장불성如來藏佛性の 이리에 수입修入하는 것을 밝힌 것. 『망월불교대사전望月佛敎大辭典』 5권, p. 4,127.
- 3) 『중관론中觀論』 : 4권. 용수 보살 지음. 구마라습 번역. 줄여서 『중론』이라 한다. 27품 446개로 되었고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과 함께 삼론宗三論宗의 소의론所依論. 그 내용은 가장 철저한 중도를 주장하여 공공과 가假를 파하고 다시 중도에 집착하는 견해도 파하여 팔부중도八不中道 곧 무소득無所得의 중도를 말한다.
- 4) 원시경전 : 불교의 초기 교리가 아직 발전 또는 정리되지 못하고 대승사상이 발전되기 이전의 불교경전.
- 5) 『잡아함경雜阿含經』 : 50권. 송사의 구나발타라 번역. 사아함[장아함], 『중아함』, 『잡아함』, 『증일아함』의 일. 다른 아함에 들지 아니한 것을 주위 모은 것. 내용은 가장 원시불교의 형태를 지녔고 설법한 내용도 극히 간단한 고타, 공공, 무상無常, 무아無我 또는 팔정도의 원형대로 표시되었으며 부처님과 불제자들의 면목이 뚜렷이 나타난다.
- 6) 화지부化地部 : 소승, 20부의 하나. 불멸 후 300년에 일체유부一切有部에서부터 따로 나온 것. 『중론宗論論』 솔기述記에 「이 부부의 주주는 본래 국왕으로 왕이 거느리는 계지내界地內的 지상의 사람을 화도化度하였으므로 화지라 함. 나라를 버리고 출가하여 불법을 흥선弘宣하고 근본을 따라 이름을 화지부라 하였음」 『한국불교대사전』 7권, p. 311.
- 7) 『대반야경大般若經』 : 당나라 현장 번역. 대반야바라밀다의 약칭으로 『대품반야경』이라고도 함. 600권 4처 16회 39품으로 나누어 80여 개의 명수를 들어 모든 법은 죄다 공공하다는 사실을 밝히다.
- 8) 『성유식론成唯識論』 : 10권. 당나라 현장 번역. 법상종의 중요 전적. 세친의 유식사상의 대표적인 『유식삼십승』을 문하의 10대 논사가 해석한 10개의 학설을 호법을 전통으로 하고 다른 이들의 말을 비판하여 종합해서 659년에 번역한 것. 팔식을 자세히 말하여 인식의 과정을 명백히 하고 또 실천적 수행의 오계위五階位를 말한다.

「此諸法勝義亦即是眞如 眞謂眞實顯非虛妄 如謂如常表無變易」

이라고 한 것을 본다면, 진여는 현상계의 일체 제법의 실체로서 진실하여 항상하고 허망한 것이 아니요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현상계제법現象界諸法の 실체가 될 뿐이요, 번역變易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진여로부터 어떻게 현상계제법이 연기될 수 있는 것인가. 『대반야경大般若經』 권569에

「諸法雖生 眞如不動 眞如雖生諸法而眞如不生 是名法身」

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진여로부터 현상계의 일체 제법이 현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아직 구체적 진여연기설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일진여—眞如로부터 일체제법이 전개된다고 설한 점으로 보아 적어도 진여연기설의 발단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진여연기설이라 하면 누구나 다 『기신론起信論』<sup>9)</sup>을 상기할 만큼 이 논문은 진여연기에 관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다. 즉 『기신론』에서는 진여를 중생심의 실체본체라고 정하고 있다. 『기신론』에 의하면 「법이란 이른바 중생심으로서 이 마음이 곧 일체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섭하느니라」<sup>10)</sup> 하였다. 즉 법이란 곧 중생의 마음이며 이 중생심의 실체가 진여라는 것이다. 이 중생심에는 실체적인 진여 문眞如門의 뜻과 현상적인 생멸문生滅門의 뜻이 있

는데, 그 실체는 불생불멸不生不滅 부증불감不增不減하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절대무한한 것이다. 그러나 현상은 생멸하고 증감하며 피차가 다름이 있는 상대 유한한 것이다. 이 진여와 생멸의 이의二義는 일심一心의 두 가지 뜻이므로 진여를 떠나서 생멸이 없으며, 생멸을 떠나서 따로 진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여와 생멸의 관계는 불일불이不一不異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과 파도의 관계와 같아서 물은 정적인 것이나 파도는 동적인 것이므로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不一 그렇다고 해서 물을 여의고 파도의 체體가 없으므로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不異. 즉 실체를 여의고서 현상이 존재할 수 없고 또 현상을 여의고서 실체가 따로 없다.

이상과 같이 진여는 오직 중생심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일체제법의 실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논에 심진여자心眞如者는 일법계의 대총상大總相이요 법문의 체라고 하였다. 만약 진여가 이와 같이 불생불멸하고 진여평등하여 하등의 차별이 없고 변화도 없다면 우리들이 현실에서 감각하는 이 현상계는 어찌서 천차만별하고 생멸변화하는 현상만을 보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一切諸法 唯依妄念而有差別 若離 心念則 無一切境界之相」<sup>11)</sup>

말하자면 심진여心眞如의 심성은 불생불멸한 것이지만 망념妄念을 통해서 일체만유를 보게 되므로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면 색안경

9) 『기신론起信論』: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약칭. 인도의 마명馬鳴 보살이 짓고 진제삼장眞諦三藏이 번역함. 내용은 ① 인연분因緣分 ② 입의분立義分 ③ 해석분解釋分 ④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 ⑤ 권수이익분勸修利益分의 오분으로 나누었음. 그중에 입의분, 해석분은 교리론으로 일심一心, 이문二門, 삼대三大을 말하고 수행신심분의 일분一分은 실천론으로 사신오행四信五行을 말하였다. 주석서로는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의 『의소義疏』 4권, 해동원효海東元曉의 『소疏』 2권, 현수법장賢首法藏의 『의기義記』가 있다. 이것을 기신론의 삼대소三大疏라 함. 『한국불교대사전韓國佛敎大辭典』 1권, p. 687.

10)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해동원효海東元曉疏 권1, 18下 6行

11) 『대승기신론 해동원효소』 권2, 2上 9行.

을 쓰고 외계의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은 모두 안경의 색으로 인해 변하여 보이고 그 사물의 본색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망심이라는 색안경으로 만물을 보기 때문에 만유의 진상眞相을 진상 그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진여로부터 현상계의 제법이 어떻게 연기되는 것인가.

### 3. 『기신론起信論』의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

#### (1) 연기緣起의 근원인 아리아식阿黎耶識

『기신론起信論』에 의하면 진여에는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두 가지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연기는 이 이의 가운데 수연의 뜻에 의하여 선악제연善惡諸緣을 따라서 천차만별의 염정제법染淨諸法을 연기한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면 불변과 수연은 서로 모순된다. 왜냐하면 그 본체가 상주불변常住不變하여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선악의 제연諸緣에 따라서 생멸변화하는 제법을 연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즉 불변이라 함은 유식가唯識家<sup>12)</sup>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응연상주凝然常住 무작제법不作諸法이라 볼 것이 아니라 수연하여 제법을 연기하면서 항상 성덕인 불변의不變義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밝은 거울이 사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 즉 거울의 바탕이 본래 청정하여 그 본성을 바꾸지 않으므로 능히 사물을 비추는 것이니 사물을 비춤에 의하여 드디어 경체鏡體의 청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진여가 수연하여 제법을 연기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체가 불변하므로 능히 수연하여 제법을 연기하고 제법을 연기함에 의해서 도리어

진여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뜻은 서로 진여의 성덕을 나타낼지 언정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기신론』에

「依一心法有二種門 云何爲二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是二種門 皆各總攝一切法<sup>13)</sup>……心生滅者依如來藏故 有生滅心 所謂不生不滅與生滅和合非一非異名爲阿黎耶識<sup>14)</sup>

이라고 하였으니 불변절대의 심진여心眞如가 기동起動하여 수연현상隨緣現象한 것이 곧 심생멸문心生滅門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래장如來藏이란, 여래를 간직한 심心이라는 뜻으로서 본지구족本自具足한 자성청정심自性清淨心인 불성 즉 일심의 본체인 진여를 가리킨 것이다. 불생멸不生滅이 생멸과 화합해서 비일비이非一非異라 함은 본체와 현상 즉 심진여心眞如와 심생멸心生滅의 뜻이 서로 다른 것을 비일비이非一이라 하고 또 불생멸의 심진여 자체가 기동해서 생멸차별의 제법을 나타냈기 때문에 심진여 밖에 생멸의 제법이 따로 없고 또 생멸 밖에 불생멸의 심진여가 따로 없는 것을 비이非異라 하였다. 진여와 생멸과의 관계는 앞에서 언급한 물과 파도의 관계와 같다. 대해大海의 물이 바람에 의하여 출렁거리 파도가 되었을 때 수상水相과 풍상風相이 서로 여의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이非異의 뜻이다. 즉 파도를 여의고 물이 있을 수 없고 물을 떠나 파도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물과 파도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비일의 뜻이다. 이상의 물과 파도의 비유와 같이 망릇인 생멸과 진眞인 불생멸이 화합해서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아니한 것을 아리아식阿黎耶識이라고 한다. ㉔

12) 유식가唯識家: 우주의 삼라만상은 모두 아리아식으로부터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법상종을 연구하는 학자들.

13) 『대승기신론 해동원효소』 권1, 21下 6行.

14) 『대승기신론 해동원효소』 권2, 8上 4行.

## AI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은광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그대는 어제 밤 무슨 꿈을 꾸셨는가요? 항상 깊은 숙면을 취하여 꿈에 대한 기억이 없으신가요? 어떤 형태든 뭐 좋습니다.

Daum, Naver, Google을 검색하고 MBC, KBS, SBS, JTBC 등등의 똑같은 뉴스와 정보를 보고 듣는 우리는 같은 범주에서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틀을 기준으로 사고를 하게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

얼마 전 AI 김주하 앵커가 MBN 종합뉴스에서 실제방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화제가 되었다. 딥러닝 기술로 김주하 앵커의 목소리와 동작을 학습하여 실제 방송을 진행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AI라는 사실을 모를 뻔 했다. 굉장한 일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중학생과 가까이에서 꽤 긴 시간을 함께 한 일이 있었는데 요즘 무슨 책을 읽었느냐고 물으니, 책은 읽지 않았고 대신 설민석 강독으로 유튜브에서 '햄릿' 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를 들었다고 대답했다.

아! 그렇지. 지금은 책을 읽지 않고 오디오북으로 듣는 시대구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흥미진진하게 해석·설명되는 것으로 책의 내용을 습득하는, 그래서 심지어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었던 것이다. 영화를 보듯 스낵을 먹으며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다.

'햄릿' 과 '사피엔스' 라는 책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반가운 책이었지만 우리는 책에 대하여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전적으로 나의 고정관념이 문제였으리라. 읽지 않고 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해 버린듯 했고, 잠깐의 사유가 나에게 요구되었다.

세상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들과 화려한 고화질의 광고들 그리고 초고속의 속도 앞에서 한

장 한 장,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야 하는 그 느낌을 견딜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니어야 할 텐데.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심장함과 소중함을 유튜브에게 자리를 다 내주어서는 아니 될 텐데. 이 일을 어찌지. 스님과 중학생의 거리가 너무 아득하고 멀게 느껴졌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에게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보고 있도록 독려한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실은 우리 어른들의 욕망이 아니었던가. 그들에게 깊은 철학과 사유의 시간을 빼앗은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점점 할 말은 없어지고, 시니컬한 중학생의 태도에 밀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스님은 왠지 가여운 모습이 되고 만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거의 인조인간처럼 보인다. AI만이 AI가 아니다. 아이돌 가수들과 연예인들의 천편일률적인 웃음이 그렇고, 그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따라하며 흉내 내는 사람들의 패션이 그렇다. 이러한 상황이 현시대 사람들의 허무인지 고독인지 아픈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감각인지 모를 일이지만 하나의 흐름임에는 틀림없다.

대부분 우리들은 어떤 의무감처럼 습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상공간에서 보낸다. 컴퓨터를 켜고, TV 리모콘을 누르며 핸드폰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다닌다. 그러면서 초연결 시대에 걸맞지 않게 외로워하며 울적해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일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그대가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곳은 시공간이 뒤섞여 있지만 적어도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자유로운 곳이다. 그렇게 그대는 자신에게만 보여지고 존재하는 세상 속에 머물다가 눈을 뜨면 꿈에서 깨어나고 잠에서도 깨어난다. 그리고선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인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공간의 일상으로 복귀해 있는 거다. 잠이 들어 있었을 때의 세계란 무엇인가? 또 Wi(와이파이)에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지점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 두 세계의 공통점을 그대는 알고 있는가?

눈에 병이 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세계, 망상을 하고 꿈을 꾸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세계를 불교는 '허공꽃'이라 했다.

우리는 지금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는 휘황찬란하게 겹겹으로 펼쳐진 '허공꽃' 속에서 분주하다. 그 댓가로 길을 잃었고 눈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종이조각 날리듯 흘려가고 있는 중이다.

길을 잃은 것이 유튜브의 잘못도 아닌데 유튜브는 무슨 이유로 왜 스님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가? 뭐가 문제인가? 꿈속만이 꿈이 아닌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해결책을 지금 우리는 AI에게 물으러 가야 하는 것일까? 🍄

##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 / 사미니과

신심으로써 욕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여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걸어가라.

- 지계제일 우바리존자 -

운문사 강원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겨울철이 되었고 치문반이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저에게 강원은 습의와 경전공부, 개인기도 이 세 가지가 주된 생활이었습니다.

‘계의 그릇이 온전해야 선정의 물이 고이고, 선정의 물이 고여야 지혜의 달이 뜬다’, ‘계를 잘 지키면 허말라야 꼭대기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다’ 등의 말을 수업시간에 교수스님께서 해 주셨는데 계속 듣다보니 ‘도 대체 무슨 계를 지키라는 것인가? 맨 처음 받은 5계인가? 사미니10계인가? 보살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받은 계는 많은데 정작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스님과 저희 노스님께 계에 대해 여쭙보았는데 ‘5계만이라도 잘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궁금증이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문사에서 포살을 한다는 공지를 들었고 기대가 컸습니다.

운문사 온 도량의 스님들이 청풍료 큰방에 모여 가사장삼을 수하고, 울주스님께서 보살계를 설하시는데 정말 그 모습에 신심이 절로 났습니다. 행자 때에는 비구스님께서 계를 설하시는 모습만 보았는데, 운문사와 울주스님께서 계를 설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운문사가 아니면 또 내가 어디 가서 비구니스님을 울사로 모시고 이 많은 대중들과 함께 포살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포살 이후 계에 대하여 조금 더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상반스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에 대한 궁금증을 좀더 풀어 보고자 합니다.

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의문이 들었던 것은 ‘계정혜 삼학에서 계가 가장 우선인데 갖 출가한 우리는 왜 계에 대해 배우지 않고 경전을 배우는가’ 였습니다.

저희가 강원에서 배우는 것이 대승경전인데, 대승경전의 계율은 화엄경의 정행품, 범행품과 같이 경전의 일부로써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계율의 조항을 언급하기보다 계율의 정신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 정신에 따라 대승계를 실천케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교단이 확대되면서 간단한 계경이 필요하게 되어 『보살계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축율원장 덕문 스님의 ‘출가자의 대승보살계 정신’이라는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엄경은 삼취정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설해져 있으며 대승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또한 삼현 위에서도 십주, 십행, 십회향의 두 번째 지위 점차에서 폭넓게 지계에 대한 말씀이 시설되어 있다. 반야경은 6바라밀이 중시되었고 6바라밀 중에 계바라밀 부분이 반야부 계통의 지계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집과 법집을 파해서 아공, 법공, 구공을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써 지계바라밀을 성취해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은 지계에 대하여 주로 육바라밀을 설하고, 고요한 선정과 마음으로부터 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율법임을 말하고 있다. 특히 ‘살아 있는 일체의 것에 대하여 자비한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처럼 불살생의 계가 보다 적극적인 실천행위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대승불교에서는 계율과 경전이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문반이 처음 강원 들어와 습의를 익힐 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습의 조항들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일단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전스님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습의를 익혀야 하는 것 입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습의를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강원에서 배우는 경전에는 계율의 조항에 대한 세세한 설명에 앞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의 정신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 정신에 따라 계를 실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승불교에서 지켜야 할 계율정신이란 무엇일까요?

대승불교의 계는 보살계입니다. 원효 대사의 「보살계본지범요기」 첫머리에서

계의 형상인 조목들에 집착하는 것은 얕은 것이며, 그 정신을 체득하여 무애하게 도를 행하는 것이야말로 심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계는 그것이 자체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여러 인연을 의지하여 그러한 것들에 적응해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독자적이며 절대적인 계상이라고 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계는 그것을 성립시키고 있던 연이 아닌 다른 연을 만나면 이미 계가 아닐 수 있고, 따라서 그 계를 성립시켜 주고 있던 연을 떠나게 되면, 그 계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 즉 절대적인 어떤 계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수지하여야 할 것은 잘 수지한다. 그래서 ‘계란 단순한 현상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계를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커다란 과오를 범하는 일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언제나 아주 작은 죄까지도 범하는 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죄가 된다는가 죄가 아니라든가 하는 따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의 실상에 위배되는 일 또한 없다. 그런 까닭에 항상 죄를 범하는 일이 잘 계를 수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보살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원효 대사의 『보살계본지범요기』 인용문을 보며 계를 수지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과 답답했던 마음이 뽕 뚫렸습니다. 결국 보살계의 본질이란 형식적이며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상에 집착함을 여의고, 일심을 관조하며, 이변에 머물지 않고, 자리와 이타를 겸행하는 생활을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행하는 보살도를 이루어서 그 수행하는 과정을 원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정등각하셨는데 불교의 계율이 중도가 아닐 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어리석게도 저 혼자 ‘무엇은 절대로 안 되고, 무엇이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계를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계, 사미니10계, 보살 10중 48경계를 형식적으로만 받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계들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문사 강원에서는 갓 수행자가 된 이들에게 그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부분들을 아주 장기적인 시각으로 계획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4년간 배울 경전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계의 실상을 잘 안후에 운문사 강원을 졸업하고 열심히 정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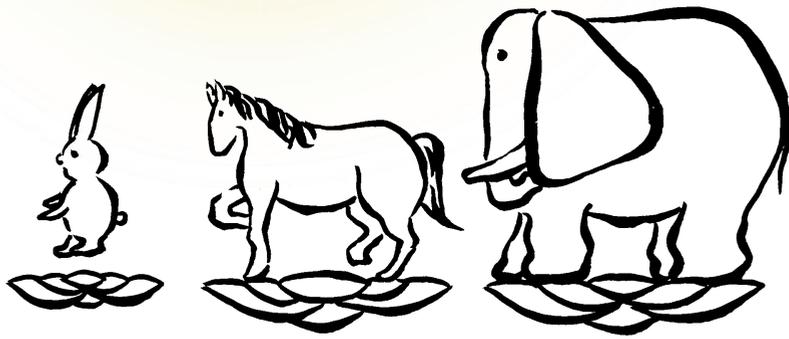
三獸渡河

三獸渡河의 故事

三獸渡河의 故事

三獸渡河의 故事

無得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등등떠서

경중경중  
뛰어서

말 바닥까지  
사무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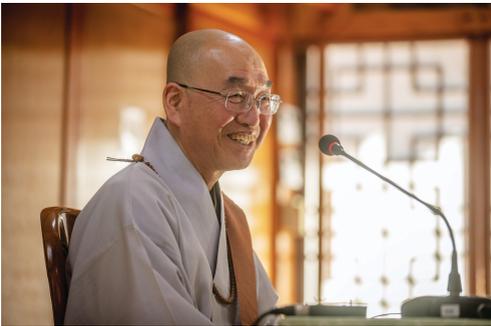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 정토회 JTS -

평화 운동가이자 구호 활동가이며 보살의 삶을 서원한 수행공동체 '정토회'의 지도법사이신 법륜 스님이 운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날 청풍료에서 열린 즉문즉설 가운데 이 시대의 수행자의 방향과 가치관에 관해 말씀해 주신 부분을 편집부에서 취록하여 글로 옮겨봅니다.

## 이 시대 수행자의 방향과 가치관

법륜

### 하나, 수행자의 표상



사진제공\_ 정토회 스님의 하루

수행자의 첫 번째 표상은 괴로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경지란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하는데 무얼 하든지 간에 수행자는 욕구, 욕망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즉 열반 혹은 니르바나, 해탈의 상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수행입니다. 도달하는 방법은 성격, 취향, 스승, 인연 따라 다릅니다. 어느 방법이 더 좋으냐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구에는 기본적 욕구, 상대적 욕구, 지나친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란 생존 욕구를 말합니다. 사회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보장해야 하는 욕구입니다. 상대적 욕구란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욕구를 말합니다. 지나친 욕구란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기 때문에 당장 강제적으로라도 멈추게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 욕구 이상을 욕망이라 하며, 이 욕구들 가운데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적 욕구입니다.

상대적 욕구는 비교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욕망충족의 감소법칙에 의해 하나의 욕망을 충족하면 다음엔 더 큰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다시 불행해지는 고락을 되풀이합니다.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약육강식이나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약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욕구의 절제나 스스로의 적절한 자제가 필요합니다.

붓다 이전의 쾌락주의는 욕망 충족으로 인한 기분 좋음으로 열반을 삼았다면 고행주의는 생존의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억제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이 아닌 한 쪽으로 치우친 견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제시한 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에게 고행의 포기란 수행의 포기가 아니라 치우침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압하고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따라가는 것도 아닌 제 3의 길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자는 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까르마로부터 일어남을 알아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잠깐 일어나는 것이지 붙들고 고뇌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의 결과에 어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수행자라면 번뇌가 있어도 그것에서 자유로워져서 얼굴이 좀 밝아야 합니다.

수행자의 두 번째 표상은 하는 일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자기가 괴롭지 않은 경지에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신만 안온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기를 괴롭히는데 쓰던 남는 에너지를 남을 돕는데 씁니다. 그리고 자선활동가가 아닌 수행자로서 수행을 기초로 돕습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희생 아닌 희생이 되어 도로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힘들고 괴롭다면 그는 자선 사업가이지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을 도왔다는 생각 즉, 댓가나 과보를 기대하면 실망, 원망이 생깁니다. 수행자는 자기 인생을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자립해야 하는데 원망, 한탄은 자립한 것이 아닙니다.



## 둘, 수행자의 기본자세

부처님 당시 수행의 기본은 밥은 빌어먹고 옷은 주워 입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과 비교해서 어떤 옷을 입어도 분소의 보다는 낫고, 나무 아래 보다는 나은 데서 자므로 여기에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힘이 들고 할 게 있겠습니까? 수행자는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갈 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여행도 아니고 성지순례인데 흉내라도 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은 얻어먹든지, 직접 해먹든지 하고, 잠은 침낭에서 자고, 짐은 남이 들어주면 안 됩니다. 부처님도 출가 전에 시중을 데리고 살았지만 출가 후 시중 없이 사셨습니다. 평생 자신의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고 사셨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야 수행자 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지, 하인을 데리고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닙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세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며, 사람들이 받드는 것에 물들어 그것이 일상이 되면 출가한 이유가

없게 되고 잠깐의 편리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상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원칙적으로 사셨지만 나무 밑에서 자유롭게 사셨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셋, 출가자의 두 가지 길

관점에 따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직자의 길 즉, 종교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종교인은 복을 빌어주고 그 대가를 받으며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사회에서 재능을 가지고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브라만들은 그런 방식으로 다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기 편한 쪽으로 가려면 종교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달프더라도 수행자로서 살려면 제가 말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고달프다' 라는 표현도 말이 안 됩니다.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해탈의 길인데 욕구의 절제를 통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 이쪽이 더 편한 길입니다. 수행자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관점과 기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인의 길을 가면서 수행자의 길을 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



학인들의 질문에 답한 시간들로 이루어진 이날 법문은 때마침 청풍료 마루 가득 들어온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고 명쾌한 것이었습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오신 쌀과 배추만큼이나 수행자로서의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가르침과 울림을 준 것은 법륜 스님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가 최소한 어떤 정신

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소박한 증거였습니다. 초심자들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법륜 스님과 정토회 행자분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초기 불교적 관점에서의 명상 용어 정리

전현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요즘은 거의 명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명상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명상에 대한 과열과 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 중의 하나가 명상 용어다. 명상 용어가 사람에 따라 제각각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는 돈 명상도 있다고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 명상 용어를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초기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 왔다.

명상은 여러 문화와 종교, 그리고 하는 목적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다르지만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명상은 유익한 마음으로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유익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명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을 잘 해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명상이 될 수 없다. 유익한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 정신에 일어나는 현상과 해로운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익한 마음일 때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일 때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명상을 통해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은 명상이 아니다.

명상 대상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호흡도 될 수 있고 신체 감각도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명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명상은 본질적으로 볼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존재를 이루는 몸과 마음의 본질을 알고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불교에서는 명상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수행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 그런데 명상이 널리 퍼지고 보편화되면서 불교에서도 수행과 명상이라는 말을 병행하는 것 같다. 때로는 대중을 배려하여 수행보다는 명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럴 때 명상과 수행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초기 불교 수행을 먼저 보고 그 관점에서 현재 다양하게 쓰이는 명상 용어를 정리해 보겠다. 초기 불교 수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불교 수행을 하는 목적은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철저히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존재를 이루는 몸과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관찰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사유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관찰해서 아는 것이다. 관찰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눈, 귀,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과 통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눈, 귀,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과 통상적인 의식이 아닌 특별한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찰이 필요한 것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보통의 의식을 가지고 하는 관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관습적 실재와 궁극적 실재다. 관습적 실재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보통의 의식으로 감지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것이다. 예를 들면 손이나 발,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관습적 실재는 존재해 있는 동안 바뀔 수 있다. 손은 날씨가 추우면 색깔이 바뀔 수 있다. 그에 비해 궁극적 실재는 존재해 있는 동안은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한의 단위가 된다. 물론 궁극적 실재를 이루는 궁극적 물질과 정신도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궁극적 실재는 감각기관과 보통의 의식으로는 감지가 되지 않는다. 궁극적 실재를 알아야 우리 존재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 존재는 관습적 실재의 측면으로도 존재하고 궁극적 실재의 측면으로도 존재한다. 이 둘을 잘 알아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다. 관습적 실재는 누구든지 알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관찰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 대충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가지고는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궁극적 실재는 궁극적 실재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볼 수 있다. 궁극적 실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겨야 볼 수 있다. 지혜의 눈은 삼매를 얻었을 때 생긴다. 삼매는 마음이 확고하게 한 대상에 가 있는 상태다. 그때 마음에는 번뇌가 없어진다. 마음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 있다. 삼매가 되면 마음이 지혜의 눈을 통해서 온전히 아는 기능을 발휘한다. 초기 경전인 상윳따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으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게 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법은 궁극적 실재로서의 법을 말한다. 손을 비유로 들면 눈으로는 손을 볼 수 있지만 손을 이루는 세포는 볼 수 없다. 세포를 보려면 현미경을 이용해야 한다. 현미경에 해당되는 것이 지혜의 눈이다. 그런데 현미경은 물질만 볼 수 있다. 삼매를 통해 얻어진 지혜의 눈으로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도 볼 수 있다. 궁극적 실재는 궁극적 정신과 궁극적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관습적 실재도 마찬가지다. 관습적 물질과 관습적 정신이 있다. 관습적 정신이란 화가 났을 때 화난 현상을 말한다. 궁극적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다. 근본 마음이 있고 마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음부수가 있다. 화가 났을 때 궁극적 정신을 본다면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마음부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볼 수 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보통의 의식으로 관찰하는 것을 거시적 관찰이라고도 하고 불교 용어를 쓰면 사띠다. 사띠는 마음챙김으로 번역되고 있다. 그래서 거시적 관찰을 마음챙김 수행 또는 명상으로 말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삼매를 통해 얻은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미시적 관찰 또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사마타는 삼매를 얻는 수행을 말하고 위빠사나는 삼매를 얻어 지혜의 눈을 통해 궁극적 실재로서의 법의 속성인 무상, 고, 무아를 보고 아는 것이다. 무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 고는 그러한 변화는 괴로움이라는 것이다. 무아는 그러한 변화를 전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변화는 법칙에 따라 일어날 뿐 우리의 바람이나 희망은 눈곱만큼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물리학으로 비유하면 마음챙김 수행은 물체의 속도와 질량, 힘을 다루는 고전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고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은 미세한 양자를 다루는 현대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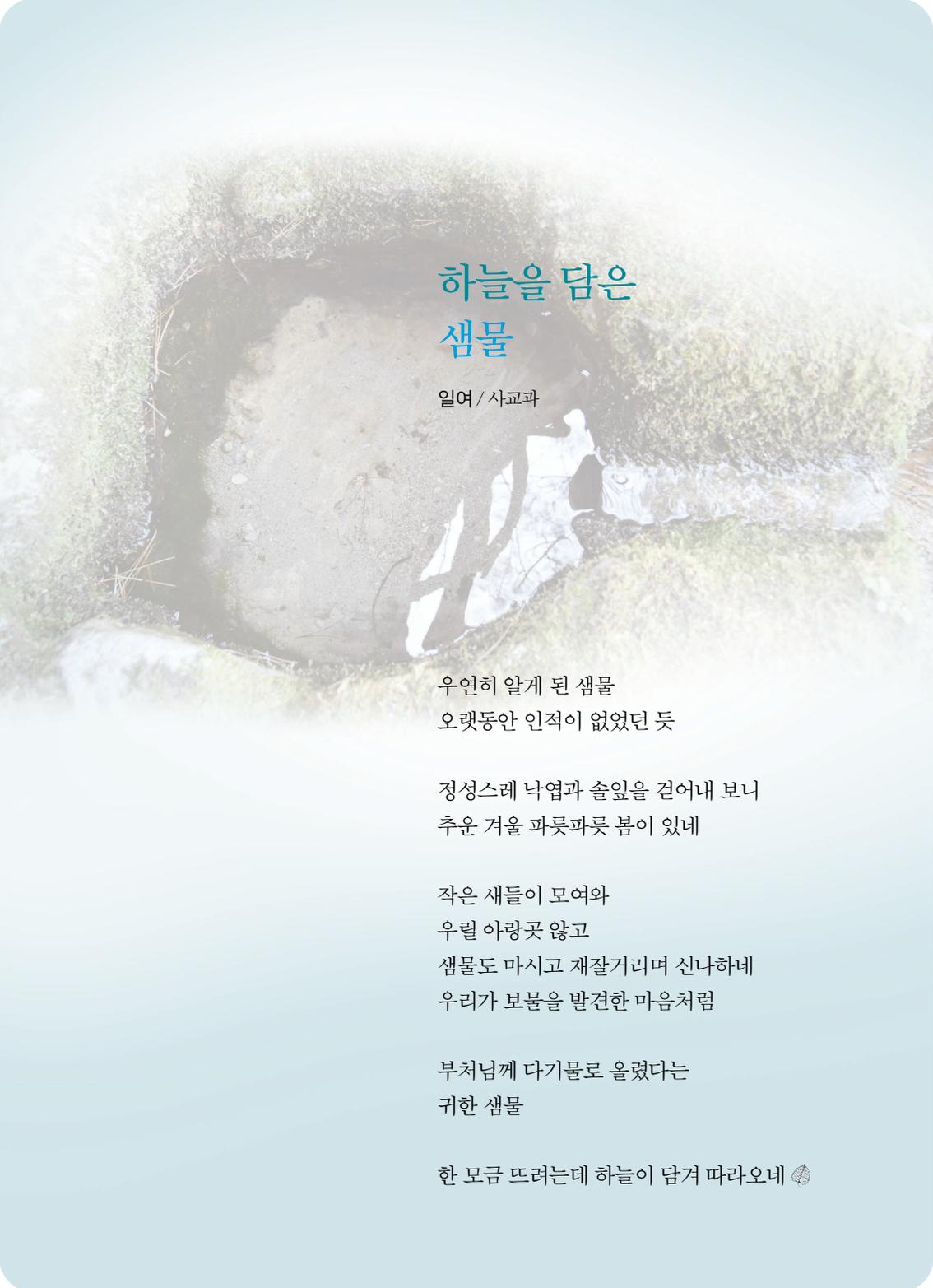
리학과 현대 물리학 두 물리학에 정통해야 물질적 세계를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보통의 의식을 가지고 유익한 마음으로 하는 명상은 모두 마음챙김 명상의 범주에 든다고 하겠다. 여기서 명상이 성립이 되려면 유익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유익한 마음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중 두 개 이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처음에 예를 든 돈 명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돈에 대한 욕심에서 하는 것이라면 명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돈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고 돈에 대한 명상을 한다면 명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명상의 요건이 성립된 상태에서 그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명상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자애를 기르고 연민을 기른다면 자애 명상, 연민 명상이 된다. 또 걸을 때 걷는 행위를 하나하나 관찰하면 보행 명상이 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하면 일상생활 명상이 되고 일상생활이 설거지이면 설거지 명상이 된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명상을 보면 거의 다 거시적 관찰인 마음챙김 명상에 속하는 것 같다. 마음챙김 명상을 철저히 한다면 어지간한 괴로움을 다 없앨 수 있고 우리 존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지혜로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마음챙김 명상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을 할 수 있다.

삼매를 닦는 사마타 명상은 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틈을 내어서 하거나 휴가를 내어서 일주일 정도 하는 것으로 삼매를 성취하기는 어렵다. 물론 개인차가 있다. 그렇다고 삼매를 얻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삼매를 성취한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하면 삼매를 경험하고 지혜의 눈을 열어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보고 우리 존재,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화가 났을 때 실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관찰한 것의 내적인 기전 또는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의 의문도 없이 알게 된다. 우리 몸과 마음에 맞게 살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도 괴로움이 많이 없어지지만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괴로움을 거의 완벽하게 없앨 수 있다. 나아가 삼매를 통해 얻은 지혜의 눈을 가지고 연기 수행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지도 보고 알 수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 지도 보고 알 수 있다. 물론 미래는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의 조건으로는 미래가 그렇게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생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먼저 명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만약 명상이라고 하면 마음챙김 명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명상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를 알아봤다. 필자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이런 기준으로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명상들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 하늘을 담은 샘물

일여 / 사교과

우연히 알게 된 샘물  
오랫동안 인적이 없었던 듯

정성스레 낙엽과 솔잎을 건어내 보니  
추운 겨울 파릇파릇 봄이 있네

작은 새들이 모여와  
우릴 아랑곳 않고  
샘물도 마시고 재잘거리며 신나하네  
우리가 보물을 발견한 마음처럼

부처님께 다기물로 올렸다는  
귀한 샘물

한 모금 뜨려는데 하늘이 담겨 따라오네 🍵

# 믿는 마음[信心]에 대한 고찰

자우 / 사집과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 2. 신심信心의 의미
  - 1) 초기경전에서의 신심信心
  - 2) 대승경전에서의 신심信心
- 3. 수행에서 신심信心의 역할
- 4.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 1. 들어가는 글

신심信心이란 무엇일까? 불교의 모든 수행은 불법승佛法僧과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한다. 화엄경에서는 전반적인 수행의 계위를 신해행 증信解行證으로 나눈다. 신심信心에 대한 의미나 해석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믿는 마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수행의 근본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논고를 통해 信心의 의미와, 수행에 있어서 믿는 마음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신심信心의 의미

### 1) 초기경전에서의 신심信心

37보리분법은 지혜를 통한 해탈·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초기불교의 7가지의 수행 방법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 가운데 오근五根<sup>1)</sup>과 오력五力<sup>2)</sup>의 출발점은 신근信根과 신력信力이다. 여기서의 신은 삼보三寶와 사성제四聖諦 등 불법佛法의 이치를 깨닫는 근본을 뜻한다.

다시 말해, 37보리분법에서의 믿음은 불법佛法의 이치를 깨닫고 불선不善한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한다. 불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 통찰지通察智<sup>3)</sup>, 즉 혜근慧根과 혜력慧力の 도움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과 지혜의 균형이다. 『청정도론』에서는 특히 믿음과 통찰지가 균등해야 함을 당부한다. 두 가지 모두 균등했을 때 비로소 믿을 만한 것을 믿게 된다고 말한다.<sup>4)</sup>

‘믿을 만한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상윳따 니까야』의 「깊이 들어감 경(S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에서는 세존, 법, 승단, 그리고 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법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졌을 때 완전한 깨달음, 즉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설한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성인의 흐름에 든 예류자이므로, 장차 해탈할 것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이다.”<sup>5)</sup> 여기에서, 성스러운 제자는 이러한 이유로 부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는 법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 세존의 제자들이 모인 승단은 바로고 참되고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승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세상의 위없는 복밭이므로 승가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지닐 뿐만 아니라 삼매에 도움이 되는 청정한 계를 지닌다.”<sup>6)</sup>

이는 붓다와 그 가르침의 온전함과, 이를 믿고 따르는 수행집단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승僧은, 불법에 대한 가르침을 믿는 승단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집단에 소속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정견正見의 확립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계持戒 정신으로, 계戒는 법의 의미와 대응한다. 붓다에 대한 믿음이 법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붓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법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승단

에 대한 믿음은 계율의 유무로 인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 2) 대승경전에서의 신심信心

마명보살馬鳴菩薩이 저술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등장하는 네 가지 믿는 마음(四信)은 앞에서 살펴본 『상윳따 니까야(S55)』의 신심의 의미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起信論』에서는 대승법에 나아가 수행하는 방편에 삼종의 발심發心을 말한다. 첫 번째는 신성취 발심信成就發心이니, 신과 발심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여기에서 정직한 마음直心, 법을 향한 깊은 마음深心과 중생을 향한 대비심大悲心을 갖추게 된다. 두 번째 해행발심解行發心에서는 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바라밀행을 수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증발심證發心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발심과 신심의 관계이다.

「수행신심분修行信心分」의 四信은, 첫째는 근본에 대한 믿음으로 진여법眞如法을 즐겨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에게 한량없는 공덕이 있음을 믿는 것으로, 항상 부처님을 가까이하고

1) 근根은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으며 점점 더 확고해진다는 특성을 초목의 뿌리에 비유한 것이다. 신근信根, 정진근精進根, 염근念根, 정근定根, 해근慧根 등의 다섯 가지이다. 같은 책, p 685

2) 역력은 불선不善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동시에 이와 함께하는 법법을 강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진다. 신력信力, 정진력精進力, 염력念力, 정력定力, 혜력慧力 등의 다섯 가지이다. 같은 책, p 722

3) 통찰지洞察智는 유익한 선심善心과 연결된 위빠사나의 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직관적으로 전체를 꿰뚫어 안다는 의미이다.

4) 믿음이 강하고 통찰지가 약한 경우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통찰지가 강하고 믿음이 약한 경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 각묵 스님·대림 스님 옮김, 각묵 스님 엮음, 『니까야 강독II』, pp 368~370

5) 이는 예류도의 뿌리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류도는 신심의 뿌리(saddhaya mula)라고도 한다. 확고한 믿음은 합리적이며 견견에 뿌리를 둔다. 이는 예류도를 견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6) 각묵 스님 옮김, 『상윳따 니까야』 6, pp 253~255

네 가지 믿는 마음 (사신四信)	의 미
근본에 대한 믿음 (신근본信根本)	진여법眞如法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므로 '근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짐 <sup>7)</sup>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불信佛)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으므로,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공경하며 선업善業을 행하여 일체지一切智 구하기를 원하는 연고 <sup>8)</sup>
법에 대한 믿음 (신법信法)	부처님의 수행과 그 가르침에 큰 이익이 있으므로 항상 모든 바라밀을 수행하기를 생각하는 연고 <sup>9)</sup>
스님에 대한 믿음 (신승信僧)	승려는 바르게 수행하여 자신과 남을 모두 이롭게 하며, 항상 모든 보살 대중을 친근하여 여실한 행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연고 <sup>10)</sup>

공양하고 공경할 것을 생각하여 선근을 일으켜 일체지一切智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어서 항상 모든 바라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다. 넷째는 스님들이 바르게 수행하여 자리이타 할 것을 믿는 것으로, 항상 모든 보살을 즐겨 친근하여 참다운 수행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믿음(四信)을 바탕으로, 안과 밖의 인연을 훈습하여 바른 믿음을 내어 오문五門<sup>11)</sup>의 수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발심과 신심에 대한 설명으로, 진여법眞如法과 삼보三寶에 대한 믿음으로 수행을 통해 우리도 그러한 해탈을 증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았다.

### 3. 수행에서 신심信心의 역할

수행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공용功用在 무엇인지를 『화엄경華嚴經』 계송을 통해 살펴보겠다. 『화엄경』은 보살菩薩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불설佛說의 유일한 대승경전이다. 이 경전에서는 십신十信의 신만성취信滿成就가 십주十住에 포함된 42위위의 계위점차階位漸次를, 신해행증信解行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현수품賢首品」에서는 현수보살이 다음과 같이 신심의 공덕功德과 공능功能을 계송으로 노래한다.

信爲道元功德母 長養一切諸善法  
斷除疑網出愛流 開示涅槃無上道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다. 일체 선법善法을 길러내어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욕愛欲의 강물에서 벗어나 위없는 열반涅槃의 도를 열어보인다.

信爲功德不壞種 信能生長菩提樹  
信能增益最勝智 信能示現一切佛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 믿음은 보리수를 생장케 하며 믿음은 수승한 지혜를 증장케 하

7) 一者 信根本 所謂 樂念眞如法故. 감산 지음, 오진탁 옮김, 『감산의 起信論 풀이』, p 269

8) 二者 信佛 有無量功德 常念親近 供養恭敬 發起善根 願求一切智故. 같은 책, p 270

9) 三者 信法 有大利益 常念修行 諸波羅蜜故. 같은 책, p 270

10) 四者 信僧 能正修行 自利利他 常樂親近 諸菩薩衆 求學如實行故. p 270

11) 오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 바라밀)

고 믿음은 온갖 부처를 시현하게 한다.

우리는 「현수품」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계승을 통하여, 청정한 믿음은 번뇌를 떠나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교만을 없애 주고, 공경하는 마음의 근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믿음은 보배로운 가르침 중에서 으뜸가는 법이며, 청정한 손[手]이 되어 모든 실천을 다 받아들이게 하고, 능히 여러 염오染汚와 집착을 버리고 오묘하고 깊은 법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여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보살도를 튼튼히 받쳐 주는 기초가 되므로 신심이 완전할 때, 그때가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 「범행품梵行品」에 나오는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便成正覺’ 이, 곧 믿음이 원만하게 성취된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신심信心이 차제次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한편, 그 자체가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모든 단계를 포괄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믿음, 믿는다는 것 그 자체에 이미 이해하여 실천하여 깨달음을 증득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초기경전에서의 불법승과 계율에 대한 믿음과, 기신론에서의 사신四信은 계율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그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계율에 대한 믿음과 실천은 불법승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실천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 4. 나오는 말

본 논고를 통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신심의 정의와 수행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신심信心은 자신의 불성佛性を 확고하게 믿고 이를 깨우쳐가는 마음상태이자 수행과정이며, 수행의 근간을 이루는 첫걸음이자 보리도를 완성시키는 필수불가

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필수적인 것은 관조觀照를 통한 확신과 실천이며, 자신과 타인의 불성佛性を 믿고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수행의 모든 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흡하나마 이 글이 초심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

#### 〈참고 문헌〉

- 각목 스님·대림 스님 옮김, 각목 스님 엮음, 『니까야 강독II』, 초기불전연구원, 2013
- 각목 스님 옮김, 『상윳따 니까야』 6, 초기불전연구원, 2009
- 감산 지음, 오진탁 옮김, 『감산의 起信論 풀이』, 1992
- 규봉 종필, 『都序』, 조계종교육원, 2004
- 여천 무비,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4, 16, 담앤북스 출판사, 2014
- 운허 용하 지음, 『불교사전』, 佛泉, 2012
- 이지관 지음, 『伽山佛教大辭林』 卷 14, 15,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15



## 평화로운 미소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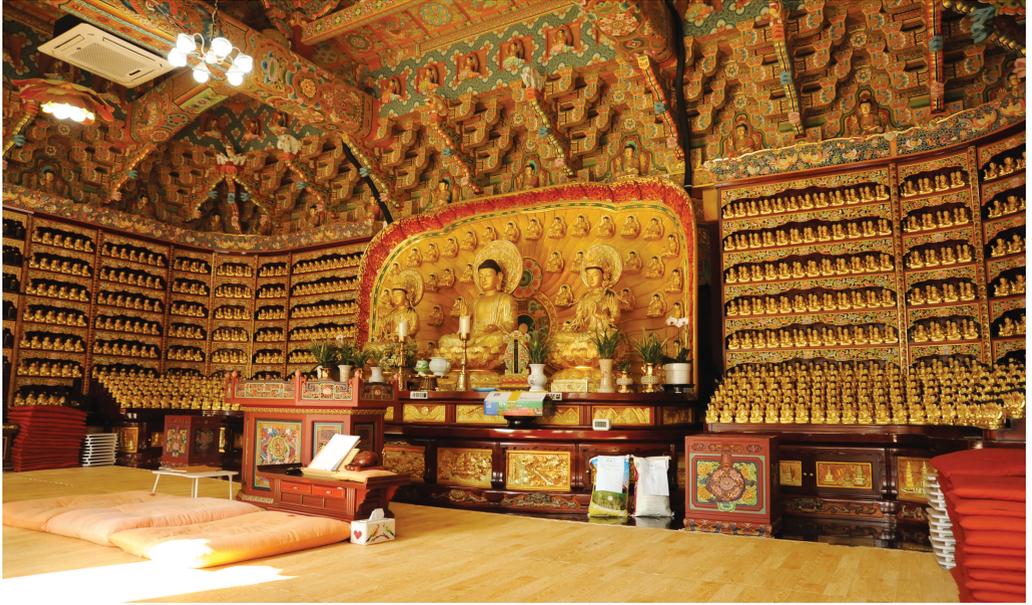
-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을 뵈고 -

탄연 / 대교과

관음사 회주스님을 처음 뵈 건 사미니 수계산림에서였다. 강의 끝에 지도해 주셨던 알아차림 명상에서 그동안의 삶을 위로해 주는 듯한 깊은 울림을 받았다. 그때의 따사로운 시간은 흐른 지금에 떠올려도 성성할 정도로 여운이 강력하다. 철저한 계행과 한결같은 수행의 정진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스님의 모습을 통해 우바리존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법을 청하러 가는 발걸음이 굳기처럼 가벼웠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운문사에는 명성 큰스님도 계시고……. 잘 계시죠? 한국불교에서 혜성 같은 분이요 특히나 비구니 교육계에 살아 있는 증인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죠. 운문사는 지금 학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때는 250명씩 살았는데 지금은 출가자들이 자꾸 급감하니…….”





관음사 대응보전

1기 행자 교육부터 59기까지 지켜보신 바로는 출가하는 행자들의 전체 숫자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상황이라 하셨다. 그렇다면 한 20년쯤 후의 한국 승가는 어떻게 될까?

“원래 어떤 나라든 연 소득이 이만오천불(약 이천팔백만원) 이상 되면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천주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렇듯이,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하겠죠.

출가자가 줄어들다 보니 발심하여 어렵게 출가했지만 설익은 상태에서 사중일과 도량관리에 정력을 많이 쏟아야 하다 보니 공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수행이 제대로 안 된 이들이 후배들을 지도해나가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총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는 우리가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셨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로 인해 자연이 병들 뿐 아니라 인간들의 성품, 마음도 점차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해야 하는 것이 불교인데, 불교 안에서 수행하는 승가 공동체가 그 역할을 잘 못 해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존재들을 오염시키면서 우리 스스로의 성품 또한 오염되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갔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스님께서는 이어 칠불통계계 七佛通戒偈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諸惡莫作 衆善奉行 자정기의 시제불교 自淨其意 是諸佛教’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왜 가지가지 나쁜 짓을 꿈속에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그 나쁜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나쁜 일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티베트불교에서는 보리심에 배대하여 ‘이기심’ 이라고 설명했죠. 나만을 위한 일,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 일은 전부 다 이기심이고, 나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고통을 주는 생각(=번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받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身·口·意 삼업을 선한 쪽으로 충전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이타적인 선행을 하는가, 이기적인 악을 행하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그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뀌어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요.

세상 사람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기에 그 사람들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 속에, 옷 속에, 자동차 속에, 모든 것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지요. 어느 것 하나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남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깨달음의 인연을 만들어 주는 선행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뵈고 모시고 수행하셨던 분들, 테리가타-장로니계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부처님은 항상 평화롭게 미소 짓는 분, 항상 지혜가 밝으신 스승님, 자비로운 미소를 짓는 분, 행복하신 분’ 입니다. 고요한 행복의 대명사이신 거죠.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데 부처님 당시라고 해서 지금이랑 많이 달랐을까요? 부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언제나 미소 짓고 계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셨어요.

또한 그러한 분이시기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켜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앙굴리마라나 연화색비구니, 주리반탁가가 그런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일반사회 속에서도 승가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었지만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성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평화로운 미소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평화로운 미소의 힘을 어떻게 지닐 수 있는 것일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평화로운 미소의 힘에 대한 견고한 신심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여쭙어보았다.

“뒤편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기 수행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한 가지 수행의 문에 깊이 들어가서 수행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나무처럼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나아간다면 언젠간 큰 나무가 되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대지에 나를 맡기는 이러한 신심을 통해야만 열매가 맺혀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순간순간 출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을 통해 의지, 원력을 키워 청정을 유지해 나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하루에 5시간 정도는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정진이란 선법을 좋아하는 것인데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서 힘이 생겨요. 선의 힘.



저는 지금도 부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염불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적게 하며 세상 인연과는 조금 결별하고, 불법승 인연과 더 가까이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신이 없어서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 다음 생도 타락하지 않으려고 매일 매일 서원을 하며 살아요.”

스님께서서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했다며 부질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감사하며 말씀을 마치셨다. 스님의 평화로운 미소는 마치 햇님이 나그네의 무거운 외투를 벗겨주듯, 초심자의 들뜨고 방황하는 마음을 가라앉게 해 주고 초발심을 다시 일으켜 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법의 향기로 환희심이 샘솟았다. 바르게 깨달은 부처님과 보리심을 발한 모든 선지식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 올린다. 🍀

## 오만과 편견

문광 / 사집과



사집과 도영

오만하고 고집 센 행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로 받은 법명, 삭발염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파르라니 깎은 머리, 셋노란 행자복은 그에게 모두 과분해 보였습니다. 현대의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무장한 그에게 승가의 생활은 너무나도 엄격했고, 대자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심’ 과 ‘묵언’ 이라는 모토(Motto) 아래, 갓 출가한 행자에게 허락된 말은 단 두 마디, “네”와 “잘못했습니다.”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 대종은 울리는지, 폭풍의 언덕과 같은 날들 속에서 행자의 몸은 법당과 후원 사이를, 행자의 마음은 허락된 두 마디 대신, “아니요”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사이를 바빠 오갑니다. 그렇게 절집에서 반년이 채워지고, 그는 드디어 행자복을 벗게 됩니다.

옷의 색깔이 주황빛에서 먹빛으로 물들자 지켜야 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은 늘어났습니다. 푸른 바람이 드는 큰방 청풍료靑風寮는 새롭게 살아갈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함부로 살아왔던 생의 습은 쉬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F=ma’, 가속도의 법칙은 결코 행자를 빗겨 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행자 자신의 노력(힘)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소의 뿔과 같은 고독한 수행승의 삶을 꿈꿔온, 그러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에 아직은 역부족인 그에게, ‘온 힘(F)’ 을 들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얼굴도 나이도 성격도 가치관도 다른, 40여 명의 스님 대가족(?)과의 동주同住가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버티는 것으로, 나중에는 온 힘을 다해 참는 것으로, 이제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된 ‘함께 살아감’ 은 행자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天上天下 唯我獨尊’을 잘못 이해하는 그에게 ‘함께 산다는 것’은, 홀로 존재한다는 ‘오만’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때부터 이부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루의 일과에 절대 ‘혼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함께 공양하고 함께 예불하며 함께 공부합니다. 제의 인원은 ‘0’입니다. 누군가는 어제의 나의 모습이 되고 누군가는 내일의 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함수 공식보다도 더 긴밀히 연결된 이 삶은 그의 마음속,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다시 꺼내게 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비로소 모든 것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간 문명에 도취되어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에게, 승가는 역설적으로 “처음부터 자신이 혼자인 적이 없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드넓은 창공을 공유하는 만물과 함께, 가정과 사회의 은혜 아래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보시 위에서 항상 살고 있었습니다. 행자는 비로소 자신의 온 생생이 우주의 일부였으며, 삼라만상森羅萬象 속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함께 산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음을 뜻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우물 크기의 하늘이 주어지고, “내가 옳다”라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열쇠 구멍 크기의 세계가 주어집니다. 한 번도 자신의 색안경을 벗어본 적이 없었던 그가 스님들의 손을 잡고, 굳게 닫힌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옵니다.

소나무와 은행나무 앞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듯, 다른 시공간을 살아온 상대와 자신 앞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잘라 버리는 관념의 칼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와 마주합니다. 상대의 고통과 평화, 자신의 고통과 평화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 中 -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행자는 승가의 “함께 살아감[同住]”을 통하여 스스로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참회하며 상대의 마음에 “네”하고 긍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찾던 대자유는 바깥이 아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분 한분의 대중 스님들께서 지금의 행자를 키우기까지 무던히도 애를 썼음을 알기에 행자는 오늘도 묵언默言을 지킵니다.

푸른 대중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고, 드디어 이 새 스님의 삶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내리칩니다. 그리고 먹색으로 물들인 옷은 이제 그의 몸에 조금은 맞는 듯했습니다. ☸

## 끝, 다시 시작

대검/사미니과

지금 저는 운문사에서 도반들과 함께 치문의 마지막 철을 나고 있습니다. 점점 무채색으로 깊어지는 겨울, 각자가 지난날을 돌아보며 발심했던 내용을 점검하기에 적합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아직은 낮은 강원 생활이지만,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저마다 남다른 생각을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는 비단 치문반에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강원에서의 삶은 밀도가 높습니다. 밖에서라면 몇 달,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사건들이, 또 그에 따라 맞닥뜨릴 경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치는 까닭입니다. 그 와중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좌절감은 뿌리는 갈을지 몰라도 다양하게도 표출됩니다.

우선 조금함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에만 집중해도 시원찮을 판에 영 소질 없는 일까지 평균치로 끌어올리려 덤비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는 하는 걸까?’

막연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다음엔 또 뭘 해야 하지?’,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게 맞나?’

그리고 부끄러움. ‘내가 이렇게나 부족했구나.’ 「초발심자경문」에는 ‘금생수생에 미명심未明心 하면 적수滴水도 야난소也難消니라’, 즉 ‘이번 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녹이기 어렵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이켜 보면, 매순간 출가수행자로서 시주은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 가르침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제 현실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래서야 내가



사교과 지혜

세상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치문의 일과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제 모습과 대조되어 괴롭기만 했습니다.

정신없기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 가을철, 저는 저녁 입선 도중 정량을 핑계 삼아 한 번씩 청풍료 밖으로 나오고는 했습니다. 정량 뒤쪽으로 조명이 닿지 않는 담벼락 구석에 있는 운동기구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는 광경을 올려다보고 있다면, 이 광활한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이 겪었던,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겪을 수많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혼자 위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에 비추어 처음 발심하던 순간을 돌이켜 봅니다. 출가를 해야만 한다는 너무나도 명료한 깨달음에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그때. 어쩌면 그때야말로 ‘첫 발심의 순간이 정각을 이룬 것’이라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時便正覺의 뜻이 가장 진실하지 않았을까요? 셀 수 없는 전생을 지나 오며 쌓아 온 숙업 탓에 시야가 흐려졌을 뿐, 자성의 성체는 늘 오롯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지. 어떤 훗날의 존재가 맑고도 선명한 눈으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듯, 별들은 우리를 조망하며 미리 신심으로 기약해 둔 미래로 조용한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갈무리하고 계신지요? 또 이 수행의 마지막을 어떻게 갈무리할 예정이신지요. 저는 강원의 첫 학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때 이른 겨울잠을 앞두고 신진대사를 늦춘 동물처럼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제 처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초심을 견지할 수만 있다면 치문을 떠나서도 일평생이 치문의 여정일 테지요. 머나먼 천체의 태곳적 반짝임은 또 한번의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위안을 줄 것입니다. 수집 생 동안 쌓아 온 숙업을 추도하는 의식을 치르듯, 지나간 것들과 앞으로 지나갈 것들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늘 회향을 염두에 두고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면 제 어깨가 조금이라도 더 무거워지겠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21년은 보다 초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제 57기 졸업을 앞두고

승혜 / 대교과

운문사에 입방한 지 어느덧 4년여의 시간이 흘러 이제 얼마 후면 졸업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모든 외부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인도순례의 졸업여행은 물론 화엄반으로서 당연시돼 왔던 봄철 탁발, 경주남산으로의 봄소풍, 대자원 상좌와의 마지막 회향,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운문유치원 방문 등 보람 있는 유의미한 대외 활동들이 모두 중단되었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반면 경반으로서 ‘화엄의 바다’에 폭 빠져 지내며 밖으로 향하던 시신을 내면으로 돌려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등 좀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된 것도 같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매년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며 지내 온 시간으로, 우리 57기는 많게는 60대부터 적게는 스무 살의 막내 스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소통의 실험실을 방불케 했고, 운문사 강원이 왜 ‘용광로’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몇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치문 자자시간에 양치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점을 제시하여 현재와 같은 양치시간이 정해졌고, 학인들의 건강을 위해 체조시간 마련을 건의해 지금과 같은 건강체조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집반 때에는 학인들의 각종 경연대회를 이끈 종단의 방침에 의해 여름철 내내 ‘바라’와의 한판승을 겨루며, 최우수상이란 성과도 이뤄냈다.

많은 역경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57기 스님들, 순간순간 힘든 시간과 고비가 닥칠 때마다 웃음으로 승화시키며 긍정의 시간으로 엮어낸 도반스님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다. 병고로 지금 함께하지 못한 스님을 포함하여 그리운 얼굴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다시 오지 않을 강원 4년의 생활. 앞으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새록새록 생각날 것 같다. 사교의 어느 가을 아침, 상강례에 늦지 않으려 가사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맑은 가을햇살 속으로 뛰어

들던 도반들의 웃음소리가 포말처럼 흩어진 날, 인자하신 어른스님의 '위의를 갖추지 않음' 에 경책을 들었지만 햇살 속에서 활짝 웃던 도반스님들의 얼굴이 참으로 정겹게 기억된다.

안개 자욱한 수목화의 풍경 같은 여명의 시간, 짙은 녹음과 경쾌한 물소리, 바람소리, 단풍, 설경 등 아름다운 운문의 이 자연 속에서 폭 파묻혀 지냈던 시간들이 벌써부터 그립다.

이러한 생활과 수행이 어우러지는 운문사 터전을 마련해 주신 회주스님과 여러 어른스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어리숙하고 물정 모르던 초심의 학인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대중스님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

## 공양합니다



더러운 것을  
쓸어내고..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이 모든 행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가진 것을 더불어 나누며



대교과 지엄



## Let It Be(순리에 맡겨라)

선덕 / 대교과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 시킬 수 있는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의 취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저의 취미는 음악감상입니다. 음악은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의미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감명 깊게 들은 음악인 비틀즈의 Let It Be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틀즈가 데뷔한 후 6년 만에 비틀즈는 멤버 간의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곡을 각각 따로 녹음할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었고 폴 매카트니는 예전에 다 같이 모여 매일 연습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폴 매카트니의 꿈속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폴, 그대로 두고 받아들이렴. 그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면 저절로 해결이 된단다. 너는 그저 그대로 두고 모든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렇게 폴 매카트니는 꿈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 주신 그 메시지로 곡을 만듭니다. 그 곡이 바로 Let It Be 였습니다.

제가 이 곡을 감명 깊게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순리에 맡겨라 또는 내려놓아라. 말은 참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뭘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 내려놓고 순리에 맡기라는데 왜 우리들은 자꾸 욕심을 일으켜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만들까요? 우리들은 항상 욕심에 휘둘려 자신의 인생에 이성적인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속에는 조금 더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저는 법륜 스님의 강의와 책을 즐겨 듣고 읽는 데요. 법륜 스님의 책을 읽던 중 비유를 적절하게 드셔서 머릿속에 남아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에 불 잡고 너무 뜨겁다며 안 뜨겁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아라”라고 말하면 손에 불을 놓치고 싶지도 않고 뜨겁기도 싫으니 그거 말고 다른 해결방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손에 옮겨 들어라라며 방안을 말해 주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불을 다른 손에 옮겨 든다고 해서 그 다른 손은 안 뜨거워질까요? 만약 당장은 안 뜨거워진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곧 또 뜨겁다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욕심을 움켜쥔 채 괴롭다고 하면서 내려놓으라는 명쾌한 해답을 말해줘도 욕심도 놓고 싶지 않고, 괴롭지도 않고 싶은 또 다른 욕심에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며 계속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머릿속으로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실제로는 온갖 것들에 걸리는 모습의 제 자신을 보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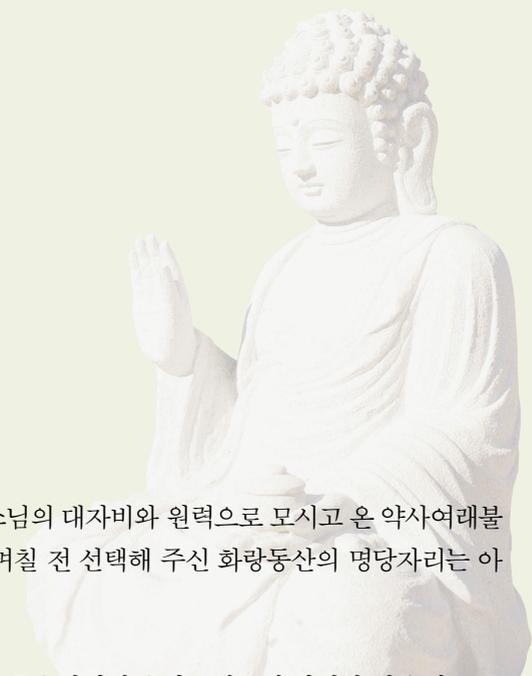
저희 절 노스님께 “노스님, 공부와 행이 하나가 안 되는 제자신이 답답해요”라고 고민을 말씀드리니 노스님께서 저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스님께서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말을 들었을 땐 난 가만히 있는데 뭘 자꾸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몸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을까요? 몸이 아닌, 허덕이는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구하려는 것을 못 구할 때의 괴로움과 구하고 나서도 지키지 못할까봐 생기는 괴로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면 이 세상 어떤 것이 괴로울게 있을까요?

이어서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세간에는 괴로움만 있지도 않고 즐거움만 있지도 않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있으니 사람들이 그 작은 즐거움을 맛보려는 재미 때문에 중생세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세세생생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운 좋게 만났으니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 코로나 시대에 강림하신 약사여래

수완 / 사교과

불기2564년 11월 27일 운문사는 명성 회주스님의 대자비와 원력으로 모시고 온 약사여래불 봉안식을 진행했다. 회주스님과 율주스님께서 며칠 전 선택해 주신 화랑동산의 명당자리는 아침부터 온통 경희로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봉안식은 운문사 학인들과 문수선원의 수좌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겨울이었으나 햇빛은 유난히 따사하고 화창한 날씨였다. 약사여래좌상이 드디어 하얀 종이를 벗고 모습을 드러내자 대중들은 감탄하며 환희했다.

회강암으로 조성된 약사여래좌상藥師如來坐像是 연화대에 앉아 얼굴에는 미소와 함소를 띄고 계셨다. 왼손에는 약병藥瓶과 오른손엔 시무외인施無畏印의 친진스럽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장엄되어 계셨다. 약사여래불이 이 시기에 운문사에 오심은 어떠한 회주스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걸까?

회주스님은 코로나가 끝을 보이지 않고 지속되자 학인스님들에게 『약사여래본원공덕경』 12대원 독송을 권고하셨다. 학인스님들은 매일 저녁입선 때 약사여래 12대원과 발원문을 독송했고 이러한 인연으로 운문사 학인들에게 약사여래는 매우 친숙한 명호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독송되는 경의 주인공인 약사여래부처님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금부터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한다.

약사여래란 중생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시는 부처님으로 원래 명호는 약사유리광왕불藥師瑠璃光王佛이며, 별호는 약사불藥師佛, 약사여래유리광불藥師如來瑠璃光佛, 소재연수약사불消

災延壽藥師佛, 대의왕불大醫王佛 또는 의왕선서醫王善逝이다. 범어로 비살사누로라고 음역하기도 한다.

동방에 있는 정유리淨瑠璃세계의 교주이며, 과거 성불하시기 전에 12대원大願을 발하여 중생들의 질병을 낮게 해주고, 수명을 연장해 주고 화禍를 소멸해 주고, 의복, 음식 등을 구족하게 해주며, 아울러 부처의 행을 닦아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이루겠다고 서원했다. 즉 중생들의 몸의 병과 마음의 무명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현세이익現世利益과 약사세계 왕생을 본원으로 하는 약사여래 신앙이 일찍부터 성행했으며 그 영험이 뚜렷했다. 삼국시대의 경우, 전쟁 중 수많은 희생자와 병자를 냈던 상황에서 약사여래는 새로운 구원자로 등장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선덕여왕이 병에 걸려 낫지 않자 밀본법사密本法師는 여왕의 침전 밖에서 『약사경』을 염송하여 병을 낫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약사신앙 전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도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약사도량藥師道場이 건립되었고 약사의 명호를 외우며 국가 재난의 소멸을 빌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을 모신 약사전藥師殿을 두고 있어 약사신앙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 운문사내의 작압전에도 보물 제316호 석가여래좌상을 모시고 있으며 예전부터 약사여래 예경을 해왔다.

십이대원 집군기 十二大願 接群機 일편비심 무공결 一片悲心 無空缺  
범부전도 병근심 凡夫顛倒 病根深 불우약사 죄난멸 不遇藥師 罪難滅  
고아일심 귀명정례 故我一心 歸命頂禮

열두 가지 큰 서원으로 모든 중생 건지시고, 한 자비의 마음 부족함이 없으시네.  
어리석은 저희들 병이 깊어 약사여래 만나지 못하여 죄 멸하기 어려워라.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봉안식이 끝난 후 회주스님께서서는 “이제 우리 도량 내에 약사여래불이 모셔졌으니 대중스님들 매일매일 코로나19 영영소멸하기를 기원하면서 꼭 참배하십시오!” 라고 부촉하셨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많은 이들이 약사여래부처님과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 서원을 세우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수행 정진해나가길 발원해 본다. 🙏



졸업을 앞둔 화엄반 스님들이  
온실을 돌보고 있다.  
내년 봄을 미리 준비해 주고 가려는 듯  
온실을 돌보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하다.

청풍료 가득한 겨울 햇살.  
그 속에서 부지런히 마루  
를 닦고 있는 종두 스님.  
햇살을 쓱쓱삭삭 발라주는  
요술쟁이 페인터공 같다.



## 우리, 같이, 함께

겨울

그 잔잔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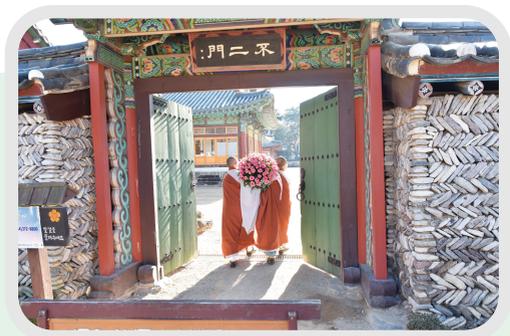
편집부



하늘이 파랗게 열린  
삼장원 앞 마당.  
새천년체조 음악에 맞추어  
다 같이 열쑤~ 덜쑤~

오늘은 동지팔죽  
옹심이 빛기 울려하는 날~  
대학원생 스님의 미소가  
새알같이 동그랗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불이不二의 치문반 스님들~  
운문사의 겨울을  
잘 부탁드립니다~



요가 수업이 진행 중인 큰방.  
은은한 빛과 소리의 여운 속에  
요가수업이 마무리 되고 있다.

회주스님의 '구순하고도 벌써 일년' 인 날~  
사집반 스님들이 준비한 그림카드와  
편지에 대중 스님들이 미소 짓고 있다.



오늘은 졸업식 사진 찍는 날~  
어른 스님들과 회암반 스님들이 환한 빛으로  
대웅보전 앞을 장엄하고 있다.

## 호거산 운문티비를 아시나요?

교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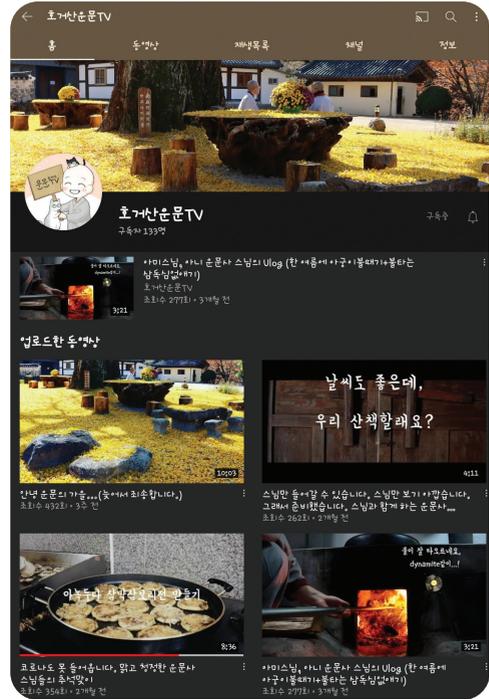
호거산 운문티비는 운문사 교화부에서 올 여름에 개설한 유튜브채널이다.

작년 겨울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운문사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던 어린이여름 불교학교가 멈춰버렸다. 친진불을 만날 수 없는 슬픔을 뒤로하고, 1년 동안 여름불교학교만을 바라오던 운문사 교화부에서는 코로나로 텅 비워진 여름을 더욱 의욕적으로 다채롭게 채워나가고자 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호거산 운문티비” 유튜브 채널의 개설이다.(다른 부분은 지난 가을 호에서 언급되었기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현재 호거산 운문티비는 그동안 운문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운문의 아름다운 자연과 학인스님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운문로그’ (Vlog의 운문사 버전)에 비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빼곡한 학사일정과 소임을 맡으면서 틈틈이 기록한 영상이다 보니 아직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시공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전문적인 소임배치와 촬영환경 개선 등을 희망하며(?) 더욱 발전해나가는 호거산 운문티비를 기대해 보고 있다.

현재 계획 중인 콘텐츠로는 운문사 강사스님들의 운문사 관련 특강과 운문사 대중 90여 명의 스님과 함께 하는 실시간 예불, 입선독송, 기도, 학인스님과 함께 하는 짧은 명상, 스님이 읽어 주는 경전, 하루 한 선시 등이 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4차 산업시대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포교활동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기에 운문사에 있어서 “호거산 운문티비”가 갖고 있는 힘은 무궁무진하다. 더욱이 외부 노출이 절제되어 있는 운문사 내부의 모습을 현재 사찰 내에 살고 있는 학인이 직접 기록한다는 점에서 “호거산 운문티비”는 다른 채널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



호거산과 가지산 영축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운문사는 큰 규모의 가람을 자랑하는 대형 사찰이다. 1000여 년 동안 이어진 보물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운문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100여 명의 비구니 대중스님들이 함께 수행하는 모습은 운문사만이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콘텐츠이기에 앞으로 채워나갈 운문티비의 영상들이 더욱 기대된다.

현재까지 “호거산 운문티비”를 본 학인스님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운문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며 “마치 무정설법을 듣는 것과 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체가 범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돌이켜 본다. 장작불을 때는 등의 매우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수행으로 삼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가르침이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되었다.”는 등의 후기가 있었다.

“호거산 운문티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호의적 댓글과 같은 보시공덕으로 앞으로 촬영을 해나가는 학인스님들에게 무한한 힘이 되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존재의 떨림과 울림에 응답하라!

- 『떨림과 울림』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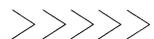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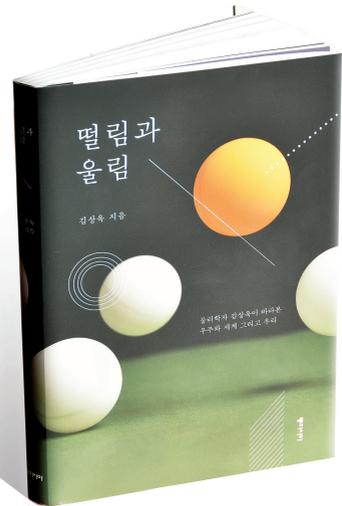
성경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겨울 숲을 포행하다 보면 키 큰 나무들의 가지들이 스스로 떨어져 그 아래 작은 나무의 가지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종종 본다. 그럴 땐 작은 나무의 입장이 되어 그 무게를 덜어 주기 위해 애써 치워주곤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웬지 나무와 교감이 이어져 “고마워, 내년 봄에 쭉쭉 자랄게.” 하며 말을 건네는 것 같다. “모든 존재는 떨고 있고, 울림이 있다.” 라고 말한 어느 물리학자의 말이 그대로 체감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물리학자의 눈으로 우리 인간과 우주에 대해 쓴 글이다. 그는 물리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작자는 어느 정도는 성공한 셈이다. 문과 출신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나의 호기심을 끌었으니 말이다.

읽는 내내, 마치 옛날 이야기를 풀어내듯 하는 저자의 글쓰기 스타일은 차가운 물리가 진짜로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학자의 자세나 인류가 역사적으로 점점 증명해 왔던 우주의 실상들은 큰 울림을 주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주관과 생명관,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수학적 물리식이나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때는 외계어처럼 보였지만…….

‘우주는 떨림이다.  
소리도, 빛도 떨림이다.  
태양도 떨고 있고, 인간도 떨고 있으며, 피라미드도 떨고 있다.  
모든 존재는 떨고 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우주와 내가 동시에 떨어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치 가슴 저 밑바닥에서 울려오는 듯 근원적이면서도 광활하고 고요한 느낌을 받았다. 나를 둘러싼 유정·무정들이 제각각 자신의 존재를 미세한 떨림으로써 드러내고 있었다. 그 자체로 이 우주에 공존할 이유가 되고 온몸으로 그 떨림을 울림으로 받아들여 존중할 인연이 충분하리라.

‘모든 존재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진동과 파동이 있다. 스스로 진동하고 공간적으로 서로에게 울림을 준다.’

불교에서는 존재의 본성을 쉼으로 본다. 공이란 ‘없다’의 의미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이 조건에 따라서 형성되었다가 조건이 다하면 소멸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우주의 실상을 말한다. 물리학에서는 모든 존재의 실상은 원자이며 생명현상은 이 원자들이 조건에 의해 분주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결국 오온[色, 受, 想, 行, 識]으로 이루어진 ‘나’도 진동과 파동을 이루며 분주히 모였다가 흩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삼천대천세계는!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인 것이다. 20세기 초 현대 물리학(양자역학)에서 발견한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혼재한다는 것이었다. 파동인 줄로만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입자인 줄로만 알았던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본질은 이중성을 갖고 있고 이중성은 상보성이라고 불렀다.’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는 절대 평등의 경지가 아니고서는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인 것이다’라는 진리를 얻을 수는 없다. 우리는 세간에 처하여 늘 이분법적 잣대로 시비를 가리고 좋고 싫음을 내세워 끊임없이 분별하고 망상에 빠져든다.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를 말하지만 번뇌의 본성이 쉼을 애써 찾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주는 여여하게(?) 대립적인 것이 상보적인 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물리에 문외한인 내가 저자의 배려가 깊이 배어있는 ‘인간적인 물리학의 언어’ 덕분에 한 치 앞도 분간 못하던 깊은 어둠을 조금이나마 밝힌 기분이 든다. 다만 몇 마디 아름다운 과학의 언어에 이끌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진리를 손톱만큼만 내 삶에 비추어 보았을 뿐이다.

우주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각각의 떨림을 알고 울림으로 답해 주는 상호작용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각각의 진동수의 떨림으로 끊임없이 수행 실천하고 그 반복은 차이를 만들어 진전을 이룰 것이다. 그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우주 사이를 이어주는 울림이 되어 세세상행보살도世世常行菩薩道가 되기를 발원한다. 🌸



## 미식美食에 대한 재고

우리가 매일 무심하게 먹는 치즈 한 장이 북극에 녹아내리고 있는 빙하와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저 먼 나라 어느 누군가의 비극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사실,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맛에 탐착하지만 앎이 없다면 못 먹을 음식은 없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탐착심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 먹는 행위의 결과가 전체적인 고히의 증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

미식이란 『사분율』 바일제 제 40조 ‘색미식계 索美食戒’에 나오는 말로 ‘좋은 음식’을 뜻한다. 오늘날로 하면 우유·치즈·요거트 등의 유제품과 고기·생선 등의 어육류, 그 외 당류와 기름류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생산경제 발달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품목들은 생산과 유통이 수월하지 않은 것들로 그 희귀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처님은 병이 없는 비구가 이러한 미식을 구해 먹는 것을 계율로 금하셨다. 조문 제정 인연을 보면 한 비구가 단월인 상인에게 미식을 청하자 항상 장사를 하는 자신들도 먹지 못하는데 하물며 출가자가 병이 없는데도 미식을 청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는 장면이 나온다. 오로지 수행을 위한 생명유지 차원에서 음식을 취하는 출가자에게 당시 미식은 일부러 구해 먹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고급 음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희귀성 정도가 극적으로 낮아졌는데 산업형 농축산업의 등장으로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천의 간극을 감안할 때 2600여 년 전 인도라는 먼 대륙의 경제·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이 ‘오래된’ 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성을 지니고 있을까? 오히려 출가자도 영양 좋은 음식의 평등공양시대를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러고만 있기에는 지금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

2019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특별 보고서에 의하면 미식의 주요 생산원인 목축업이 차

지하는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은 무려 18%이다. 온실가스 배출 이외의 다른 환경적 부담들 즉, 물·토지의 오염과 손실, 생물 다양성 손실, 에너지의 비효율적 전환에 관한 문제 등 다른 여러 측면들을 같이 고려하면 미식의 대량 생산과 소비가 생태에 미치는 부정적이다 못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파괴성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매일 무심하게 먹는 치즈 한 장이 북극에 녹아내리고 있는 빙하와 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저 먼 나라 어느 누군가의 비극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사실,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맛에 탐착하지만 앎이 없다면 못 먹을 음식은 없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탐착심 없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 먹는 행위의 결과가 전체적인 고품의 증대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결식의 전통이 대부분 사라진 승가에서 무엇을 먹는가는 개개인 수행자 혹은 승가 공동체의 개별적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리고 재가자들이 공양을 하는 경우도 공양 받는 수행자가 무얼 먹는지에 따라 공양물의 내용이 사려 깊게 결정되므로 출가 수행자가 무엇을 먹는지는 재가자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출가 수행자가 색미식계를 지키고 재가자들이 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때 현 시대가 겪고 있는 생태적 고에 대한 사부대중의 연대적 노력도 모색이 가능하다.

2600여 년 전, 더 영양이 많고 더 맛이 좋고 더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먹고자 했던 한 비구의 조출한 탐착심에서 비롯된 이 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기후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조출한 욕망들, 즉 좀더 잘 먹고, 잘 입고, 편리하고 싶어 한 그 조출한 욕망들의 전체적인 합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출가자들도 이러한 조출한 욕망의 합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지 이 색미식계를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이다. 🍃

## 운문소식



▲ 차례법문



▲ 제 42회 오백나한 100일기도 회향



▲ 향수해례



▲ 중간죽비 전달공사



▲ 사집반 자비참기도

- 11월 29일 대웅보전에서 새벽 예불 후 비로전에서 동안거 결제제사가 있었습니다. 겨울철 개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6일 범공양이 있었습니다.
- 12월 9일 청풍료에서 범륜 스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범륜 스님께서서는 직접 농사지은 쌀과 배추를 공양해 주셨습니다.
- 12월 20일 후원에서 동지 팔죽 참쌀옹심이 빚기 대중울력이 있었습니다.
- 2월 21일 대웅전에서 동지 팔죽마지가 있었습니다.
- 12월 24일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화엄반 선덕스님, 사교반 해주스님, 사교반 윤담스님, 사집반 영인스님, 치문반 서우스님)
- 12월 25일 청풍료에서 겨울철 자자가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 둔 화엄반 스님의 소회와 이에 대한 교수스님의 답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새로 부임하신 현건 부교수스님께서 운문사 생활에 대한 소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12월 27일 오백전에서 제 42회 오백나한 100일기도 회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범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방문하신 신도님들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기를 성실히 지켜 주셨습니다. 종각 입구와 처진 소나무 근처에서는 책과 달력 나눔이 있었습니다.
- 12월 29일 회주스님 생신상차림 및 축하다과회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각 반별로 준비한 선물과 편지, 장기자랑이 있었고 회주스님께서서는 대중스님들에게 공양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 12월 31일 비로전에서 철야정진과 종각에서 제야의 종 33타가 있었습니다.
- 1월 1일 대웅전에서 새해 떡국마지와 향수해례가 있었습니다.
- 1월 3일 청풍료에서 중간죽비 전달공사가 있었습니다. 회계·도감·서기 소임과 입찰중 소임이 교체되었습니다.
- 1월 8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학장스님을 단주로 대중 포살이 있었습니다.
- 1월 9일 ~ 11일 비로전에서 사집반 스님들의 자비참기도가 있었습니다. 23명 모두가 경반에 무사히 올라가 다 함께 부처님의 경전을 볼 수 있기를 발원했습니다.
- 1월 20일 성도제일 철야정진이 청풍료와 금당에서 있었습니다.
- 1월 21일 제 57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외빈 참석이 없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월 23일 동기방학일입니다. 3월 16일 개학 예정으로 방학기간은 53일간입니다.

## 도와주신 분

-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 • 영각사 흥진 스님
- 김명원 • 김수국 • 김현자 • 문수정 • 신현섭 • 윤덕자
- 이월례 • 이정숙 • 정해옥 • 최희영 • 하옥희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오백전 벽화

미입사문未入斯門  
권위견적權爲見跡

아직 깨달음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먼저 자취를 보았네

- 광암 선사 심우도 申 견적 -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21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 자 격** 2021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편입가능)
-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명
-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 모 집 기 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 전 형 방 법**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체)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울주 일진·학장 진광·주지 운산

-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21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 모 집 인 원** ○○명
-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대학원·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 모 집 기 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 전 형 방 법** 서류심사(코로나19로 인하여 서류심사로 대체)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보현율원 울주 일진·주지 운산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겨울호·통권 제154호·2021년 1월 22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법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범웅 / 편집위원·보현, 정현하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범웅(운문의 겨울빛) / 삽화·지엄, 지혜, 도영,  
 수정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